

HOME > 지역소식 > 영남권

산청군, 생비량면 방화 새뜰마을 완공

이영수 기자 / 기사작성 : 2023-12-19 16:09:31



노후 마을회관 등 신축

[산청=이영수 기자] 경남 산청군은 생비량면 방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(새뜰마을사업)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.

이번 사업은 생비량면 방화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됐다.

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와 함께 진행한 사업에서는 마을회관 및 공동작업장 신축을 비롯해 주택정비(슬레이트 지붕개량·빈집철거·집수리), 마을안길·배수로·재래식 화장실 및 노후·불량담장 정비, CCTV 및 소화전 설치, 주민역량강화교육 등이 이뤄졌다.

특히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민화합과 교류의 공간을 마련했다.

또 마을 중심부에 흉물로 남아있던 공동창고를 철거하고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신축해 마을환경개선과 주민편의증진에 기여했다.

군은 사업 마무리에 따라 준공식을 열고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기념했다.

방화마을 마을회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군의원,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관계자, 생비량면 기관사회단체장,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.

행사에서는 경과보고, 테이프 커팅식, 준공시설 현장 확인 등이 진행됐다.

한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.

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·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,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.

[저작권자 © 시민일보.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 - <http://www.siminilbo.co.kr>]